

나주 출신 의병지사 김도숙을 만나다



‘사생취의-김도숙 의병지사 일대기(부분)’

박종석 작가, 다음달 1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김도숙 삶과 예술전’ 일대기 담은 20m 대작 등 전시…내일 출판기념회·세미나도 개최

한국화가 석주(石州) 박종석 화백은 30여년간 호남회화사(史)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들을 발굴해왔다. 호남정신의 뿌리를 찾는 작업의 연장선이기도 한 그의 행보는 관련 전시와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부러진 대나무-학포 양평손의 삶과 예술’, ‘세한을 기억하고-염재 송태희의 삶과 예술’, ‘검은 고독-푸른 영혼-석현 박은용의 삶과 예술’ 등이 대표적이다.

박 화백이 이번에는 나주 출신 항일지사이자 서화가 김도숙(1872-1943)에 주목했다. 오랫동안 그와 관련한 자료를 찾고 공부에 열중한 박 화백은 김도숙의 일대기를 담은 대형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와 함께 책 ‘사생취의-김도숙의 삶과 예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책은 김도숙 서거 80주년을 맞는 내년 연구 결과를 더 모아 완결판으로 다시 발매될 예정이다.

10일부터 12월1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박종석 화백의 ‘의병지사-김도숙의 삶과

예술’전은 김도숙을 주축으로 호남의병장들을 조명하는 기획전시로 관련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출판기념식 및 오픈식은 12일 오후 3시다.

‘목숨을 버리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는 뜻의 전시 주제 ‘사생취의(捨生取義)’는 치열한 역사 현장에서 구국운동으로 불의에 맞서 투쟁한 이름 없는 별들의 노고를 기억해야함을 함께 담고 있다.

나주시 남평 봉황 출신인 김도숙은 1908년 3월 삼남일 의병장 의진(義陣)에서 도통장(都統將)으로 활약하며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의병지사이자 문인화가다.

박 화백은 김도숙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삶을 20m 대작 ‘사생취의-김도숙의 의병지사 일대기’로 풀어냈다. 더불어 대구형무소에 수감 후 처형당한 16명의 의병장 인물상을 그려낸 6m의 대작과 함께 죽봉 김태원, 전해산, 심남일, 박사화, 나성화 의병장의 수목초상화 작품도 선보인다.

7년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육고를 치른 김도숙은

1916년 출옥 후 3·1 민족해방운동에 거의(舉義)를 계획하다가 사전에 비밀이 누설돼 26년간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도피생활을 해야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필묵을 지니고 다니며 작품을 구상했던 그는 수준 높은 문인화 작품을 남긴 화가였으나 근현대회화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어느 화파에 소속됨 없이 스스로 연마해서 자기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그는 자신만의 독자적 작품 세계를 만들어갔다. 미술평론가 최열은 김도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노안도’ 연작에 대해 ‘매우 날렵하고 시원한 조형으로 비상, 경쾌라는 특징을 갖춘 작품이다. 특히 김도숙 작품은 새와 갈대 모두가 살아 있어 생동감이 뛰어난 데다가 가벼운 필치와 안정된 배치가 돋보여 원숙한 경지에 이른 솜씨가 잘 보이는 걸작이다’라고 평했다.

박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중인 ‘노안도’와 자신이 발굴한 ‘노안도’를 내년 서거 80주년 전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저자와의 만남과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의병지사 김도숙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탈리아 작곡가 ‘벨리니’ 걸작 듣기

테너 이원용 독창회…12일 한옥 콘서트홀 광주디엠홀

깊어가는 가을, 벨리니의 다양한 곡을 들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테너 이원용의 독창회가 12일 오후 2시 한옥 콘서트홀 광주디엠홀에서 열린다.

(사)빛소리오페라단과 전남오페라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테너 이원용이 이탈리아 작곡가 빈첸조 벨리니의 곡을 선보인다.

페스카라 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오토리노 레스피기국립음악원을 수료한 이원용은 일본 요코하마 초청연주를 비롯해 국립 오페라단 무대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다.

현재는 경북대 공연예술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날 선보이는 곡으로는 벨리니의 ‘나비’, ‘어린시절의 꿈’, ‘뜨거운 열망’ 등 13곡이다. 반주에는 피아니스트 이주호가 참여한다.

예매는 전화나 문자(010-2228-7040)로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오색 단풍만큼 다채로운 ‘무등풍류 댄’

13일 전통문화관…청년 국악인 무대·세시풍속 이야기 등



깊어가는 가을 무등산을 지적에 둔 전통문화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무등풍류 댄’ 11월 무대는 ‘떠이어- 풍류대장’으로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전통문화관 일일. ‘떠이어’는 대금, 소금, 단소 등에서 특색 음을 낼 때 세계 허로 튀기며 굴러내는 방법을 일컫는데 그 소리가 ‘떠이어’처럼 들린 데서 유래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입석당에서 ‘현, 천년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악기장 이춘봉(광주시 무형문화재 악기장 기능보유자)의 가야금, 거문고, 25현 가야금 등 관악기 3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민속학자 박중오(남도민속학회)의 진행으로 일동에 관한 세시풍속 이야기와 ‘무형문화재 악기장과 함께 전통 관악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오후 3시부터 서석당에서는 지역 청년 국악인

(단체)의 무대가 펼쳐진다. 첫 무대를 열어줄 청년 국악인(단체) 팀 ‘TWO 쟁(사진)’은 ‘정향’, ‘공명’ 등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쟁 2중주 무대이다. 이날 공연은 연주자들이 멘토들과 협업으로 아쟁 앙상블을 선보인다. 유건영·이건우(아쟁), 송대현·안상용(타악)이 출연한다.

지역 청년 국악인의 멘토링 지원무대 ‘청·국·장(場)’은 멘토와 청년 국악인(멘티) 간 멘토링 지원무대로 진행된다. 공모로 선정된 총 6개 단체(팀)는 지난 8월부터 멘토링을 진행했으며, 11월 까지 매회 2단체(팀)씩 실연 무대를 갖는다.

전체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062-670-8506.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피아노아카데미’ 30년 발자취

‘협주곡 갈라 콘서트’ 17일 전남대 민주마루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광주피아노아카데미가 갈라 콘서트를 통해 올해가 가기 전 그 역사를 되새긴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창단 30주년 기념 협주곡 갈라 콘서트’가 17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지역 피아니스트들의 상호협조와 교류를 목적으로 1990년 창립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현재까지 매년 두차례의 정기연주회와 한차례의 신인음악회, 각종 초청연주와 세미나를 통해 광주·전남 피아노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30주년 공연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업해 진행한다. 지휘는 빈 국립 음대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한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한 정병휘가 맡는다.

공연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피

아니스트 최현호를 비롯해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신수경이 참여한다. 또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 영재예술교육원 강사를 역임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송지영, 한양대 음악대학원에 재학 중인 주소영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조선미가 함께한다.

공연은 최현호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며 시작된다. 송지영이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를 연주하고 주소영과 조선미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선보인다. 이어서 장승기가 모리사카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연주한 다음 마지막으로 신수경의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

장조’가 울려 퍼지면서 공연의 막이 내린다.

이날 협연한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전국 최초·유일의 여성으로 구성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금까지 520여회가 넘는 공연을 선보임과 동시에 13년째 다문화 가족들에게 무료 악기교육을 진행하며 다문화 M 오케스트라를 육성하고 있다.

다음 공연은 오는 2023년 4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마라톤 연주회’가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



지휘자 정병휘 최현호 신수경

‘올해의 책’ 독자가 뽑아주세요

‘예스24’ 28일까지 투표…북클럽 이용권 증정·댓글 이벤트 진행

올해의 책에는 어떤 책이 선정될까.

예스24는 ‘2022 올해의 책’ 투표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제20회를 맞은 ‘올해의 책’은 100% 독자 투표 참여로 진행된다. 앞선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독자들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은 도서와 예스24 PD 추천 도서를 포함해 총 100권의 도서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총 100권의 후보 도서 중 1인당 최소 3권 이상 최대 6권 이하로 투표할 수 있다. 참여회원에게는

YES24 상품권 1000원과 북클럽 30일 이용권이 증정된다.

투표 기간 동안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제목을 활용해 ‘책은 00다’와 같이 스스로에게 책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는 댓글을 남기면 YES24 상품권 500원을 증정한다.며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댓글 작성자에게는 별도의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다. 한편 ‘투표 결과는 오는 30일 예스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